

[새사연 20대 정치행태 분석 프로젝트]

# 인물과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대

---

2010.10.8 | 김성주 최성용\_새사연 20대 프로젝트팀

---

## 목 차

1.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20대의 투표행태
2. 인물이 지배한 20대들의 투표행태
3. 인물과 함께 두 축을 이룬 '이슈'
4. 투표행태에 대한 문제제기 그 이상을 넘어



<http://saesayon.org>

##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20대의 투표행태

선거철 마다 우리는 ‘매니페스토’라 불리는 이른바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공개하자는 목소리를 공공연히 듣게 된다. 민주선거가 점차 반복되면서 안정화 되어 감에 따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책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치적 신념보다는 오로지 권력을 중심에 둔 정치행태가 강한 한국정치에서, 인기에 영합하는 거물급 정치인사들 간의 권력구도,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묻지마 투표’행태, 흔히 ‘~풍(風)’으로 묘사되는 특정이슈에 대한 이념적 바람몰이 등,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선거문화의 부정적 관행들을 없애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미성숙한 선거문화에서 정책선거로의 전환하는 것은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성숙한 토론과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케 하는 기반인 셈이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정책선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놓고 유권자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지지후보 선택 시 가장 크게 고려할 요인으로는 ‘정책/공약’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물/능력’이 30.0%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소속 정당’(15.2%), ‘주위의 평가’(7.3%), ‘정치경력’(5.8%), ‘개인적 연고’(0.8%), ‘출신지역’(0.6%)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유권자들은 최우선적으로 정책과 공약의 합리적인 검증을 통하여 후보를 선택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세대별로 보면 특히 20대가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난다. <서울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후보를 선택할 시에 공약과 정책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수치가 무려 48.8%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과연 현실을 올바르게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 여

1) 서울신문 5월 23일자 여론조사 자료 참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526007009&spage=19>. 2010년 8월 4일 검색.

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과연 20대를 비롯한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서 정책과 공약이 최우선의 판단기준이었을까? 이들은 과연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스스로의 가치관을 실천에 옮겼을 것인가?

20대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여론’에 반대한다. 20대가 합리적이며 정책을 통해 후보를 판단한다는 여론과 달리, 실제 20대는 정책과 공약을 합리적 검증하기보다는 그 어떤 연령대보다 인물과 이슈에 민감한 투표행태를 보였다. 따라서 이 글은 20대가 스스로에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실상을 밝히고자 하는 데에 첫 번째 목적이 있다. 이에 조금 더 보태어 정책 선거의 부재로부터 오는 갈증, 그리고 이를 추동하는 한국정치의 보수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출발점이 되고자 하는 데에 두 번째 목적이 있다.

### 인물이 지배한 20대들의 투표행태

특정 인물에 대한 20대의 반응도를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 유시민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지위는 독보적이다.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 실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적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유시민은 이 외에도 저술가, 논객 등 대외적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구축하며 그 대중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유시민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그가 출마한 각종 선거에서 20대로부터 기록한 압도적인 득표율을 통하여 이미 검증되고 있다. 가령 이번에 그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6.2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 제 4회 지방선거(2006)와 제 5회 지방선거(2010)에서의 경기도지사 선거 투표율 비교<sup>2)</sup>

	김문수(한나라당)	진대제(열린우리당)
20대 투표율	35%	25.50%

<표 1: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20대 투표율>

2) 연령대별 투표율은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2010년 지방선거 홈페이지 <http://news.nate.com/feature/vote2010> 를 참조하였다. 2010년 8월 1일 검색.

	김문수(한나라당)	유시민(국민참여당)
20대 투표율	34.70%	<b>65.30%</b>

<표 2: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20대 투표율>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진대제 후보가 20대로부터 받은 투표율은 25%였다. 반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한 유시민 후보의 투표율은 65%로서, 4년 전 보다 거의 3배 높은 지지를 받았다. 유시민이라는 인물에 대한 20대의 높은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시민이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20대의 투표 결집 현상을 일컫는 이른바 ‘유시민 효과’는 전통적인 보수층의 결집지역인 대구에서의 투표율 상승효과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2008년 총선 당시 유시민 후보는 자신의 본 지역구인 일산 고양시를 버리고, 고향인 대구에서 선거전을 치를 것을 선언하

	1위 후보 (정당/득표율)	2위 후보 (정당/득표율)	득 표 율 격차(%)
중구+남구	배영식(한나라당/48.13)	곽성문(선진당/12.30)	35.83
동구 갑	주성영(한나라당/77.60)	송영우(민노당/17.42)	60.18
동구 을	유승민(한나라당/84.43)	정동희(선진당/11.94)	72.49
서구	홍사덕(친박연대/61.77)	이종현(한나라당/32.71)	29.06
북구 갑	이명규(한나라당/52.58)	박영민(친박연대/34.24)	18.34
북구 을	서상기(한나라당/86.29)	박현진(가정당/13.70)	72.59
수성 갑	이한구(한나라당/78.40)	이연재(진보신당/19.02)	59.38
<b>수성 을</b>	주호영(한나라당/65.35)	<b>유시민(무소속/32.59)<sup>3)</sup></b>	<b>32.76<sup>4)</sup></b>
달서 갑	박종근(친박연대/49.80)	홍지만(한나라당/42.49)	7.31
달서 을	이해봉(무소속 <sup>5)</sup> /57.21)	권용범(한나라당/39.74)	17.47
달서 병	조원진(친박연대/49.23)	유재한(한나라당/47.72)	1.51
달성군	박근혜(한나라당/88.57)	노윤조(민노당/8.97)	79.6

여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약속한 바대로 대구에 내려가 주호영 후보와 겨룬

3) 이는 비 여권 득표율 중 최다 득표 수치이다. 홍지만, 권용범, 유재한 등은 한나라당 탈당 후보자 혹은 친박계열 후보자이기 때문에 비교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4) 또한 유시민 후보의 득표율은 비 여권 후보 중 여권 후보와 최소 득표 격차를 보였다.

5) 한나라당 공천 실패 후 탈당한 의원이다. 현재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역시 비교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끝에 높은 투표율 격차로 패배하였다. 그러나 예상된 패배 속에서도 흥미로운 분석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우선 당시 선거 결과를 도표로 정리해 보자.

<표 3: 지역별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정당 및 득표율>6)

	19세 투표율(%)	20~24세 투표율(%)	25~29세 투표율(%)
중구	39.2	31.1	22.3
동구	42.6	37.2	25.7
서구	45.3	36.2	22
남구	40.9	34.9	22.2
북구	20.3	20.8	20.5
수성구	42	<b>39.77)</b>	<b>26.88)</b>
달서구	44.5	37.6	24.8
달성군	18.8	22.1	22.9

<표 4: 지역별 20대(19세 포함) 투표율의 추이>

대구는 전통적으로 한나라당과 현 여권세력의 강세가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이며, 이는 위에서 보이는 2008년 총선에서의 개표결과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2008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비여권 후보인 유시민 후보가 3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다소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유시민 후보의 출마 지역인 수성구에서의 20대 투표율이 타 지역의 투표율과 비교하여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두 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답안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하여 비여권 인사의 득표율이 10% 안팎에 미치는 대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대로 대표되는 젊은 연령층의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투표로 인하여 전통적인 예상 수치가 반감되는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 수성구에서의 정동영 후보(2007년 대선)와 유시민 후보(2008년 총선)의 득표율 분석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제18대 국회의원선거총람 : 2008. 4. 9 시행.」(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참조하였다.

7) 수성구는 20대 초반 투표율 1위를 기록하였다.

8) 20대 후반 투표율에서도 역시 1위를 기록하였다.

명확한 검증을 위하여 2007년 대선에서 수성구 거주 20대가 보인 투표행태와의 비교분석을 더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자.

	1위 후보 (정당/득표율)	2위 후보 (정당/득표율)	득표율 격차(%)
수성구	이명박(한나라/71.39%)	정동영(민주신당/5.5%)	65.89%

<표 5: 2007년 대선 수성구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정당 및 득표율>

	19세 투표율(%)	20~24세 투표율(%)	25~29세 투표율(%)
중구	59.6	55.1	46.9
동구	63.4	60.3	49.2
서구	57.9	56.2	44.3
남구	59.3	55.3	44.4
북구	62.3	58.6	50.3
수성구	61.6	60.9	48.2
달서구	65.2	60.0	47.6

<표 6: 2007년 대선 지역구별 20대(19세 포함) 투표율의 추이>9)

<표 5>에서 보다시피, 2007년 대선 당시 수성구에서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은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을 압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현 여권세력의 강세가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이라는 것이 여실히 입증된다. 그러나 이를 2008년 총선에서의 유시민 후보 득표율과 상대비교를 해 보면 다소 간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정동영 후보의 수성구 득표율은 5.5%인 반면, 유시민 후보의 득표율은 32.76%로서 대략 6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 즉 같은 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정동영 후보와 유시민 후보 간의 득표율 역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물론 선거의 형태나 규모가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비교가 불가능 한 사안임이 분명하지만, 동일한 지역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큰 변화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야권후보임에도 정동영 후보와 유시민 후보라는 인물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차이가 각기 다른 투표행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9) 위의 출처와 동일.

보여준다. 즉, 정동영 후보의 경우 전통적으로 야권에 대한 반감이 강한 대구에서 야당의 지도자 이미지가 강했던 데다, 이를 뛰어넘을 만한 인물적인 매력을 호소하지 못하였다. 반면 유시민 후보의 경우 호불호가 비교적 명확히 갈리는 후보 자신만의 개성과 대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구의 유권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제 이러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변화에 있어서 20대의 역할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수성구에서의 20대 투표율 변화 추이 분석

대통령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되는 정치문화적 특성 상,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총선이나 지방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 2007년 대선 역시 전국 평균 63%의 투표율을 보여, 1년 후 치러진 18대 총선의 투표율 46.1%를 훨씬 상회하였다. 때문에 투표율 자체의 단순비교는 무의미하며, 특정 지역구에서의 연령별 투표율 순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20대가 해당 지역구의 투표양상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2007년 대선에서 수성구는 20대 초반의 경우 투표율 1위를 기록하였으며(2위 지역구와의 격차: 0.6%), 20대 후반의 경우 투표율 3위를 기록하였다. 반면 2008년의 경우, 수성구는 20대 초반의 투표율이 1위를 유지하였고(2위 지역구와의 격차: 2.1%), 20대 후반의 투표율 역시 1위를 기록하였다.(2위 지역구와의 격차: 1.1%)

2007년 대선에서 20대 초반의 투표율이 1위를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수성구에서는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시민 후보의 투표율 상승에 20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가설은 다음의 두 가지 분석에서 입증된다. 첫째, 2007년 대선의 경우, 20대 초반의 높은 투표율이 상당 부분 이명박 후보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에서 정동영 후보의 득표수가 12,665표이며 수성구에서 20대 투표자수

총합은 3,354명이다.<sup>10)</sup> 20대의 전반적으로 낮은 투표율과 당시 대선에서 20대의 이명박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근거로 추측해 볼 때, 이들의 표심이 대부분 정동영 후보에게로 쏠려서, 득표의 25%를 차지할 만큼의 위력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둘째, 2008년 총선에서 20대 후반의 투표율 순위가 1위로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으로 20대의 투표율이 다른 지역구들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특히 2007년 대선의 경우 투표율 1위부터 3위까지의 지역구에서 20대 초반 투표율 격차가 1% 내인 반면, 2008년 총선의 경우 수성구에서의 투표율이 다른 지역구를 2%(20대 후반은 1%) 이상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 유시민 후보에 대한 20대의 투표 결집력이 발휘된 것이다.

### ‘유시민’일 경우와 ‘유시민이 아닐 경우’ 20대가 보여주는 투표행태 차이

‘유시민’일 경우와 ‘유시민이 아닐 경우’ 20대가 보여준 투표행태는 특정 인물이 갖고 있는 정치적 파급력과, 선호하는 인물에 따라 유연한 투표행태를 보이는 20대의 특성이 결합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대에게 있어서 유시민이 갖고 있는 정치적 파급력은 상당하다. 이는 곧 인물 자체에 대한 유권자의 민감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20대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운 계층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20대는 자신만의 개성으로 대중적인 이미지 부각에 성공한 정치인,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대중소통에 능숙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에 대하여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념이나 정책변수보다는 해당 인물변수의 존재유무에 따라, 자신의 지역구에서 유연한 투표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인물에 대한 반응: 오세훈 vs 강금실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7, 「제17대 대통령선거총람 : 2007. 12. 19 시행.」(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pp. 330-1.



	1위 후보 (정당/득표율)	2위 후보 (정당/득표율)	득표율 격차(%)
서울	오세훈(한나라당/54.9%)	강금실(우리당/34.8%)	20.1%

<표 7: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서울지역 20대 득표율>11)

2006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과 강금실 후보의 대결구도는 사실상 두 정치신인 간의 대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오세훈 후보의 경우 당초 17대 총선에서의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계를 떠나 있었으나, 한나라당 후보 경선을 2주가량 앞두고 후보출마 선언을 한 뒤 유력후보였던 맹형규,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등장하여 선거구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또한 강금실 후보의 경우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써 당시 사법부의 순열주의를 타파하는 상징처럼 각인되어 왔으며, 개혁성과 참신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서울시장 후보에 까지 선출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유권자들에게 기성정치인들과는 다른 이른바 ‘정치신상품’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인물카드였던 셈이다.<sup>12)</sup>

그러한 의미에서 2006년 선거의 경우는 철저한 인물의 이미지 중심 대결구도였다고 볼 수 있다. 행정경험이 전무한 정치신인간의 대결에서 전문적인 정책대결이 핵심변수가 될 수 없을뿐더러, ‘신인’이라는 정치적 신분 자체에 이미 인물에 대한 신선향의 이미지가 각인되기 때문이다. 2006년 지방선거의 결과는 우리가 제기한 문제의 관점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결과적으로 강금실의 이미지는 오세훈의 이미지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즉, 2006년 선거의 경우 젊고 강한 이미지로 어필하였던 오세훈 후보는 마찬가지로 젊지만 부드러운 이미지로 어필하였던 강금실 후보 보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둘째, 인물 간의 대결구도 외에 20대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다. 우선 두 후보 모두 20대에 관한 공약에 있어서는 청년실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선향이 없었으며, 실업문제 해결에 대한 20대의 기대치 또한 낮았다. 더불어 2006

11)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2312555](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2312555), 2010년 8월 2일 검색.

12) 정치컨설턴트 김윤재 변호사에 따르면, 이른바 ‘강풍’과 ‘오풍’을 ‘정치 신상품’에 대한 유권자들의 욕구로 해석할 수 있으며, 두 사람이 보인 그동안의 모습에서 신선향을 발견했고, 유권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125.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125.html), 2010년 8월 2일 검색자료 참조.

년 당시 선거에서 쟁점이 될 만한 큰 이슈가 보이지 않았고, 국회는 과행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반적인 투표율이 낮은 20대에게 있어서 적극적 투표참여를 유인할 만한 변수가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표 7>에서 보듯이,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는 20대 투표율에 있어서도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 20% 이상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20대의 지지율이 높은 열린우리당에게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20대는 정책이나 정당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이 인물본위 투표행태를 보였다.

### 이슈에 대한 반응: 오세훈 vs. 한명숙

	1위 후보 (정당/득표율)	2위 후보 (정당/득표율)	득표율 격차(%)
서울	한명숙(민주/56.7%)	오세훈(한나라/34.0%)	22.7%

<표 8: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20대 투표율><sup>13)</sup>

반면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는 4년 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20대의 경우 한명숙 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오세훈 후보의 투표율을 20% 이상 앞질렀다. 문제는 과연 20대가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4년 전과 다른 투표행태를 보였냐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선거의 경우 20대는 인물 보다는 선거 전반을 지배하였던 대형이슈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두 서울시장 후보에 대하여 인물 자체에 대한 매력을 보고 투표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 모두 20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와 거리가 먼 후보들이었다. 한명숙 후보의 경우 민주화운동과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로서 널리 각인되어왔으나, 이러한 정치적 행보들이 20대에게 이슈가 될 만한 요인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기성정치세력에 무관심 내지는 비판적 성향을 띠고 있는 20대에게 있어서,

13)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2010년 지방선거 홈페이지 <http://news.nate.com/feature/vote2010> 를 참조하였다. 2010년 8월 1일 검색.

국무총리와 장관이라는 타이틀이 큰 지지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오세훈 후보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서, 2006년 후보경선에 등장할 당시에는 신선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는 4년 임기를 채운 서울시장으로서 이미 기성정치 안에 편입된 이미지로 각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를 자극할 만한 사회의 대형이슈들이 존재하였다. 가령 천안함 사태와 4대강 사업, 이에 덧붙여 전직 대통령 서거와 맞물린 이른바 ‘노풍(盧風)’이 대표적이다. 특히 한명숙 후보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추모열기와 더불어 서거과정을 다시금 연상케 하는 검찰수사의 중심에 서게 됨에 따라, 이에 반감을 갖고 있던 20대로부터 지지를 결집할 수 있었다. 비 대중성과 비교적 고령이라는 단점을 자신과 연계된 ‘이슈’를 부각시킴으로써 극복하였던 것이다. 천안함 사태와 4대강 사업이 20대의 투표행태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곧 이어 논의할 것이다.

### 인물과 함께 두 축을 이룬 ‘이슈’

6.2 지방선거에서 인물과 함께 20대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축은 바로 ‘이슈’였다. 특히 6.2 지방선거에서는 4대강 사업이나 천안함과 같은 대형이슈들이 산재했으며, 이러한 이슈들이 복합적인 변수로 작용하며 20대들의 투표행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동인이 되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6월 3일 한나라당의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0%가 4대강을 꼽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57.0%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6월 4일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후보를 찍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안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4대강 사업을 21.8%, 천안함 사태를 16.3%가 꼽았으며, 20대의 경우는 남성의 13.3%, 여성의 32.5%가 4대강 사업을 꼽았으며, 천안함 사태의 경우 20대 남성이 21.7%, 20대 여성이 24.5%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sup>14)</sup> 6월 2일 이전 여론조사들에서도 응답자들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14) 리얼미터 여론조사와 KSOI 여론조사 결과가 다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질문 내용과 응답 문항의 차이 때문이다.

양상을 보여왔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들로 볼 때 20대들이 실제로 후보들의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였다기보다는 이슈에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1-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의 핵심공약 중 20대 관련 공약 비교>15)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의 핵심공약 중 20대 관련 공약 비교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한명숙
<b>“일자리 걱정 없는 서울”</b> • 서울형 신고용 정책으로 100만 개 일자리 창출 • 특화된 취업훈련과 맞춤형 취업 지원체계	<b>“사회적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b> • 방과후 학교 전담교사(1만 명), 지역아동센터 교사, 돌봄교실 교사 등의 일자리 창출 • 시청, 구청, 현장 간 연계
	<b>“서울 대학생 등록금 50% 무이자 지원”</b>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학자금 50% 무이자 지원 • 졸업 1년 후 3%내 단리 융자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매니페스토 공약으로 제출했던 핵심공약 중 20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20대들의 경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들이 있었다. 이 공약들의 실현가능성 여부는 둘째치더라도,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들이 20대들에게 전혀 이슈화되지 않았다. 이는 물론 선거 판세에서 파괴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각 후보 선거캠프들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20대들이 ‘정책’을 중요시 여긴다면에서도 이러한 공약과 정책을 찾아보거나 관심가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즉,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20대들의 투표형태는 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

15) 오세훈 후보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정책 정보시스템, 한명숙 후보 공약은 민주당 서울시당 자료실의 「서울시장 6.2 정책핵심공약 매니페스토화 양식」 참조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20대들은 ‘인물’과 함께 대형이슈를 통한 ‘바람몰이’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나 천안함 사태가 20대들의 투표행위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

### 이명박 정부 심판 = 4대강 사업 반대

6.2 지방선거에서 주요한 이슈였던 ‘4대강 사업’은 ‘MB심판’ 의지가 드러난 것이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할 뿐더러,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보여준 모습과 문제점들이 4대강 사업에 집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비판의 발로로써 4대강 사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의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라는 이슈를 통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사업 반대하며 이슈를 장악했던 김두관, 안희정 후보는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당선되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구호를 이슈가 아닌 정책으로 보기에선 상당히 무리가 많았다. 아래 표에서처럼 지자체장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의 4대강 반대를 위한 전술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이는 사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방자치 차원의 정책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현실조건 하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4대강 반대’는 정책의 차원보다는 이슈의 차원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표2- 6.2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대안><sup>16)</sup>

<p><b>“온갖 위법·탈법으로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b>                  : 그 동안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과 환경부 수질개선 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에 한정하여 시행  <b>“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수행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하는 등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b></p>
---

16) 「민주당의 생활정치- 2010 지방선거 공약집」(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참조

“2010년도 추경을 편성하여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일자리·민생예산 증액”

4대강 사업이 정권심판 의지를 담보하는 이슈가 된 것은 우선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불통성’ 때문이었다. 촛불항쟁, 용산참사, 미디어법 파동 등에서 드러나는 이명박 정부의 ‘불통’의 모습이 4대강 사업에도 내재했던 것이다.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곧봉과 날치기라는 ‘불통’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온 것처럼 전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권위적’인 모습이, 87년 이후 표현의 자유가 열린 공간에서 자라난 20대들에게 ‘어이없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그래서 4대강 사업 반대는 ‘권위적인 불통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사회적으로 자리잡은 강한 합의이자 당위적 전제로 이해하는 20대들에게 있어 온갖 날치기를 비롯하여 환경양향평가조차 무시해버리는 4대강 사업은 우선 근본 전제가 잘못된,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이슈’였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로 이어졌을 것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축적되어온 고용문제나 부동산 문제를 20대들은 아무런 안전망 없이 온몸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고용을 축소하고 대졸초임을 삭감하면서 동시에 ‘노동유연화’ 기조 아래서 파견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악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는 성장하지만 고용은 침체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인 것이다. 이런 경제적 모순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20대들에게 있어, 그들이 취업유발계수라는 단어를 모를지라도 ‘4대강 사업’이 그들의 경제적 상황과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감으로 느꼈’기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4대강 사업이라는 이슈로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이 투표행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 충분히 짐작된다. 폴리뉴스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5월 23일에 실시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가 천

안함 사건 조사 발표 직후라 천안함 사태를 가장 많은 이들이 응답(33.2%)했으며, 그 다음 순위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로서 22.3%가 응답하였다. 특히 천안함 사태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대해 20대 남성은 36.6%, 24.5%, 20대 여성의 경우는 29.8%, 20.2%가 응답했다.

### 평화가 익숙한 ‘진짜 실용주의’ 20대의 역풍

천안함 침몰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는 ‘전쟁불사’까지 꺼내들면서 한반도 정세를 급랭시켰고, 그래서 천안함 사태는 지방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슈가 되었다. 6월 2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천안함 사태가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었다. 그러나 MB심판론과 범민주 단일후보라는 구도를 넘기 위해 ‘북풍’을 통해 보수층들을 집결시키려던 이명박 정부의 애초 의도는 ‘역풍’으로 좌절되었다. 그리고 이 역풍의 주역은 20대였다.

한겨레21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5월 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응답자가 높은 비율로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급랭화에 대해 전쟁 발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전쟁 발발 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20대의 경우 18.4%가 ‘입대’를, 48.1%가 ‘피난’으로 응답했다. 또한 전체 연령에서도 90%가 ‘비군사적 대응’ 혹은 ‘전쟁을 피해야’한다고 응답했으며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7%에 불과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52.9%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과도한 북풍몰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고 응답했으며 여기서도 20대가 많았다. 반면 39.5%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일컫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한반도는 대체로 유화적인 정세 속에서 전쟁에 대한 위협도가 과거보다 완화되었다. 그렇기에 평화적인 기조가 한반도를 지배했던 민주정부 10년 속에서 자라난 20대에게 ‘전쟁’이란 낯설고 불안한 것이었다. 특히 20대는 군입대를 해야 하는 연령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

해 20대는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실제 전쟁 발발 시 ‘피난’을 가겠다면, 전쟁이 발발 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죽음·재산 손실 등 나와 가족의 피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은 이데올로기보다는 개인적인 삶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20대들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다른 계층의 경우 민주정부 10년 이전의 기억이 뚜렷하지만 20대는 그렇지 않았고, ‘반공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20대에게 전혀 낯선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 탈냉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20대는 반공주의에 공감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 북풍몰이는 과도한 이데올로기 대립을 통해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것일 뿐이었다. 즉, 20대는 반공주의적인 신념체계보다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실용주의’의 입장에 서서 북한과 비군사적인 방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을 내재한 20대는 북풍몰이에 정당성을 느끼기보다는 그것을 단지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반도의 평화’에 손을 들어주었다.

### 투표행태에 대한 문제제기 그 이상을 넘어

우리의 문제제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첫 번째는 20대의 투표행태가 어느 연령층 못지않게 인물 중심적이라는 점과,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문제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 두 가설은 모두 20대가 그들 스스로 주장하듯이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후보를 선출한다는 투표의식이 오해 내지는 자기 모순적 주장에 입각한 것임을 입증하였다. 20대는 정책과 공약이라는 변수보다는 인물과 이슈라는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이번 지방선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각종 대형이슈들이 사회의 여론을 주도함에 따라 20대 역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이는 선거에서 20대들의 투표



행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동인이 되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20대에 대한 여러 공약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들은 20대들의 관심을 끌 만한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으며,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4대강 사업과 천안함 사태, 그리고 노풍(盧風)으로 요약되는 정치적 탄압에 대한 반발심리였다. 더불어 인물변수는 언제나 20대의 투표행태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20대는 자신만의 개성으로 대중적인 이미지 부각에 성공한 정치인,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대중소통에 능숙하고 젊은 이미지를 갖춘 정치인에 대하여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유시민 후보가 지역에 관계없이 보여주는 20대로부터의 압도적인 득표율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우리는 20대의 투표행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매니페스토, 이른바 정책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적인 인식과, 실제 현실에서 드러나는 행태 간의 이율배반적인 괴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선거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공개된 정책을 바탕으로 후보자들과 유권자들 간의 상호 소통, 그리고 토론문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사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당과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끔 하는 각종 원색적이고 단순한 구호들을 선호하며, 유권자들은 이로부터 언제나 자유롭지 못하였다. 인물과 이슈가 선거에서 독점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반영하는 결과인 셈이다. 우리는 이번 연구가 단순히 20대의 이율배반적인 투표행태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추동하고 있는 한국정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의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란다. 결국 정책선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20대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정치의 태생적인 보수성의 문제로부터 고민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양대 정당구조 하에서 다양한 대안정책, 특히 20대들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20대는 결코 일방적으로 보수화되지 않았다. 우리 정치가 점점 더 ‘20대로부터’ 보수화 되어가고 있을 뿐이다.